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5년 7월 발행 (제 63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권두 메시지 '7년의 멸망 계약' 예레미야

◎간증 '초막절(2)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7 년의 멸망 계약' 예레미야

<그리스도인들이 적 그리스도와 멸망의 계약을 체결 7 년이 있다>

이번에는 "7 년 계약"으로 이 일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의 환난 시대에 짐승의 나라와 적 그리스도가 많은 기독교인 사이에 단단한 계약 멸망의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쓰여져 있는 1 주 즉 7 년 계약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영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은 항간 알려져 있는, 중동 7 년 평화 조약 등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더 절실한 것,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사이에 연결되어있는 영생에 관한 계약을 파기하고, 반대로 적 그리스도와 멸망의 계약을 체결 7 년이 그 것을 예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보고하자. 이 다니엘서의 부분은 다니엘의 70 주에 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다니엘서 9 장 24 절 ~ 30 절 텍스트를 순서대로 보면서, 이 것, 종말의 날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와의 계약에 대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와 영생의 계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이있을 것이다 일인가 적 그리스도와 (멸망) 계약을 체결라는 놀라운 일이 종말의 날 도래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날이 올 것입니까? 그날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70 주 일환으로 그 날이 올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7 은 복수의 수>

70 주라는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는이 말쑤는 70 주로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어는 "70 7"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70 7"고 표현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8:21 ○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18: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곳에서 70 7 (일곱 번을 일흔 번)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0 주와 같은 표현이므로 이러한 관계하는 부분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형제를 용서 한도로 7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 즉 70 7 까지 용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도를 초과, 게다가 형제가 죄를 범 계속한다면 그 죄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서는 70 주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에도 불구하고

않고 백성이 죄를 범한 계속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배교의 백성들에게 타오르는 이 것을 볼 것입니다.

7 '복수'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라멕의 부분에서 '카인 일곱 배의 보복이 있다면, 라멕은 일흔 일곱 배'라고 창세기 4 장 24 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7 이라는 숫자에 관한 이러한 면을 이해하면 왜 종말의 날에 적 그리스도가 주 즉 7 년 동안 단단한 계약을 체결이라고 쓰여져 있는가? 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 기간은 6 년에서 8 년도 아니고, 그러나 7 년입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배교 기독교인과 단단한 계약을 체결 기간이 7 년인 통해 이 재앙은 배교의 교회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이유로 발생할 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살펴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여기에서는 70 주에 하나님의 인내, 배려, 도움이 적혀 있습니다. 즉, 벌써 붕괴 적을 쓰러 버린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긍휼을 주고 타국의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은 재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대망의 메시아도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느님은 70 주 동안 인내를 거듭해 사랑을 거듭해 모든면에서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서서 바꾸기 위한 길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타오른다>

다니엘서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행동을 바꾼 것일까요?

"기름 부음받은자는 끊기"고 짧게 쓰여진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백성은 회개는 커녕 죄를 거듭 더욱 하나님께 모독으로 되어, 마침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마저 잡아 사형 판결 십자가에 못 그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 멸망의 계약을 맺는 7 년이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의 실시에 따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인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이제 70 주도 끝나 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끝없이 용서 자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를 죽인 그 때를 계기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인내도 한계를 맞이 반대로 그 때를 계기로 하나님의 처절한 복수의 분노가 그 배신의 백성 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곧 다가올 군주의 백성이 도시와 성소를 파괴한다."

그 배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복과 복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분노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후 40 년 후, 서기 70 년에 "다가올 군주의 백성" 즉 로마 황제의 군대가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는" 즉 예루살렘 도시와 성소를 파괴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파괴되어 그 도시의 백성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가 한도를 맞아 반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그 백성의 죄에 대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이 것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주님의 첫 오순절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70 주 예언은 2 배의 예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첫 강림 날에 실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다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구약의 백성은 70 주 말까지 회개 수 없었다. 반대로 기름 부음받은 자 예수를 죽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되었다.

② 마찬가지로 신약의 백성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70 주 말까지 회개 걸음을 바꾸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교회에서 끊다.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처럼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신약의 끝, 교회와 기독교의 배교가 극에 달한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별 일만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대신 벌을 받는 등 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 펜 보호기 프로그램주의의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의 첫 오순절에 일어난 것은 이미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는 이제 종말의 날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 유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러한 두 동일한 패턴에서 일어나는 때문입니다. 종말의 날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 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기름 부음받은자는 끊어"

교회 시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진 기름, 즉 성령의 도움과 은혜의 날임을 알아 봅시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 교회는 배교에 빠져 성령을 쫓아 내도록 합니다.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6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2: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기에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워 역류 것, 즉 "성령이 제거 될 날"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제거되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성령 이신 예수님이 문밖에 쫓겨나있는 것도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에서는 종말의 교회 라오디게아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문밖에 쫓겨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종말의 날의 교회는 배교 때문에 기름 부음받은 자 잘라, 즉 예수님의 영 이신 성령을 쫓아있게되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군주의 백성이 도시와 성소를 파괴한다."

그런데이 말씀은 종말의 날에도 다시 반복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첫 오순절이 말씀은 로마 황제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소를 파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림의 날에 있어서도 이것은 재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유를 통해 실현하도록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한다면, 실은 성전은 건물보다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키는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성전은 건물보다는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일어날 성전의 붕괴 성전의 붕괴는 실은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근거하여 **"곧 다가올 군주의 백성이 도시와 성소를 파괴한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그것은 곧 다가올 군주 적 그리스도 짐승의 나라의 횡포에 의해 그리스도 교회의 토대가 무너지게되는 날이 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홍수가 일어나"

종말의 날 배교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 이신 성령을 쫓아 있습니다. 결과 그들은 귀신의 홍수에 휩쓸리게 됩니다. 지금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흥 현상이 홍수의 표현입니다. 베니 힌 로드니 하워드 등 많은 부흥의 그릇은 귀신의 홍수를 일으킬 그릇입니다.

"그 말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황폐이 정해져있다."

교회는 그 말까지 싸움이 계속 모든 적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그 전에는 철저한 황폐와 패배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전 날,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붕괴되어 그 도시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날 교회에서 재현합니다. 배도 교회는 패배하고 파괴하고 영생에 머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황폐와 패배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과 단단한 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보려면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 된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창세기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서 이 계약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속에 대해 행해지는 계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며, 또한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그의 맺은 계약은 우리에게도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쓰여진 1 주 (7 년)의 계약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의식하고 맞서 묶이는 것인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그날 짐승의 나라든지 적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계약을 파기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 주 계약"이라 함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을 저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과 영원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도록 행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것들과 단단한 계약을 체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 날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판매 전달할 계약에 동의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하는 것처럼 이날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의 교회에 머 무르지 않고, 초막절, 모래, 치에 지하 교회에 가야 것입니다.

"반 주 동안 제사와 예물과를 그만두게 하다."

반 주는 3.5 일이며, 그것은 3 년 반 환난 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날, 지금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에 전념하고 있던 제사와 예물이 끊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빵이나 기름의 제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결과, 빵, 즉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이 있다고 빵 메시지는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악령의 역사가 바쳐야 합니다.

"망치 가증들이 날개 (성전 : 70 인역)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배 장소에 망치 가증 인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가 적 그리스도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 두려운 날을 암시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자. 짐승의 나라의 지배하에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고 멸망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되는 7 년간이 있습니다. 그 날에 대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합시다.



성전의 붕괴 날은 재현된다

'초막절(2)

약 3년 전에도 '초막절'라는 주제로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3월에 토요일 집회에서 그 수에 대해 I 열왕기에서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를 되어 있었으므로, 소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7:1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2,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에 관해서는 야고보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5: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삼년 육개월"은 환난 시대입니다. 따라서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없습니다"란 "여기 2,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와 같은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슬" "비"는 "성령"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2,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는 "성령의 역사가 어쩔"라고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 "불법의 비밀은 이미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만류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제거 될 때까지 붙잡고있는 것입니다."라고합니다 같이 "성령 이 쫓겨나 '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고 싶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밖에 그리스도가 쫓겨나는 것이 써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끝에서 "성령"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하나의 큰 문제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501 (C) 3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말을 듣고 교회는 세금을 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입니다. 교회가 중 정부에 납치 된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목사는 쫓겨나고 대신 동성애를 받아들 이 같은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쫓겨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칠 줄의 한 지점으로 성령의 역사가 고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비하기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고갈의 경우에 그리스도인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대해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7:2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7:3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17:4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17:5 저가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즉 그는 요단강 동쪽에있는 그릿 강가에 가서 살았다. 모세와 엘리야는 계시록의 "두 사람의 예언자"로 통합됩니다. 두 사람의 선지자는 모세가 한 것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하고, 또한 엘리야가 행한대로 불을 하늘에서 땅에 내리게도 했습니다. "그릿"은 "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분리'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릿 강가에 가서 살았다."고 이집트 된 교회에서 분리하여 그 강에서 길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예언자적인 일에 종사 간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7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17:8 ○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7:9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불 용광로"로 통합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을 경배 않았기 때문에 던져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환난 시대에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시도되고 구분되는 것에 통한다. 즉 "사르밧 과부"는 환난 시대를 통과 과부입니다. 즉 진정한 남편을 "하늘의 남편"이며 재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비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10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무가지들 쭈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17:11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7:12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7:13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7:14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부는 궁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형태를 보여줍니다. 즉 빵, 즉 말씀의 빈곤, 그리고 기름, 즉 성령의 빈곤이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환난 시대는 어느 교회에 가도

괜찮은 메시지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배
메시지 라든지 악령의 그릇에서 이상한 영이 내려지는 등 교회 만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호흡이 끊겨 그렇다고 말하는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역설적 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 절에 "빵을 가져 오십시오"라고 영뚱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엘리야를 위해 빵, 즉 메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15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7:16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나라의 비밀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부'로 입장을 취해가는 때... 또 '지하 교회'를 해 나갈
때 괜찮은 메시지가 없다! 라는 것이 빠지지 않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엘리야에게 "빵" 즉 "메시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있습니다 같이 "예언"과
"경고"일에 주력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결과적으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때 빵이나 기름, 즉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있었습니다 만 ... 이것 통해 종말, 그리고 환난 시대에는 '지하 교회'의
행보와 역사에 매우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있는 것은? 생각합니다. 그렇게하신다면
예레미야 목사가 말씀했습니다 있도록 빵이나 기름에 끊임이없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
(영생)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일지도 모른다구나,라고 생각하면, 꼭 실천해 나갑시다.
이번에도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아의 말씀대로 행하고, 빵이나 기름 기금을 면한 사르밧 과부